

과학기술 발전은 우리의 운명인가

글 | 손화철 _ 부산대 박사후과정 whachuls@hotmail.com

철학은 당연한 것을 의심하는 태도, 혹은 경이의 태도에서 비롯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기술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삶에 중요한 일부가 된 기술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게 되었다. 지난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물음인 기술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철학적 사유의 대상을 정의하려는 노력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기술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잠시 언급한 적이 있지만, 기술철학의 짧은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물음은 역시 '현대 기술의 발전이 바람직한가(좋은가, 도움이 되는가)'이다. 기술철학의 시작이 산업혁명과 세계 대전 당시의 급격한 기술 발전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한다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과학기술, 꼭 발전해야 하는가?

앞의 물음을 조금 더 과격하게 바꾸어 보자. 과학기술은 꼭 발전해야만 하는가? 이제 엄청난 수준의 기술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제 는 더 이상의 발전보다는 기왕에 이룬 것을 골고루 나누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뭘 모르는 철학자의 헛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철학적 사유의 한 중요한 방법이다. 한국 도로의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110km인데 이미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의 마력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라리아 약이 없어서 수백만 명이 죽어 가는데 굳이 몇 명 걸리지도 않는 불치병 치료를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명한 화질도 좋지만 눈으로 구별할 수도 없는 고화소의 디지털 카메라를 자꾸 만들어 내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미 부산까지 세 시간이면 오갈 수 있는데 굳이 그 시간을 반으로 줄이려고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이쯤

되면 혹시 필자가 '좌파'가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물음들도 아니고, 정치적 편향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 어떤 공학자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프로젝트에 '왜?'라고 물으며 한번쯤은 고민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현대기술의 발전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하이데거는 나치에 부역한 극우파였고, 엘뤼은 나름대로 충실한 마르크스주의자였다. 이들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어느 정도 향상시켰다는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 끝없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었다.

'기술발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가능한 대답들을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보자. 우선 인간의 발전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고, 바로 그 욕구가 인간의 인간됨을 정의해 주기 때문에 기술발전을 멈춘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전까지 기술의 발전이 느렸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에 대해서 아무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 주장은 상당히 약화된다. 호기심이 없었던 것도,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도, 진보의 개념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호기심이 새로운 기술로 이어지지도,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진보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시절이 있다. 그렇다면 기술발전을 인간성의 본질적인 부분과 연결시키는 것은 과장이거나 착각이라 할 수 있다.

끝없는 행복으로 이어질지 의문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경쟁 때문에 기술발전은 불가피하다는 대답도 있을 수 있다. 이는 과거 냉전체제하의 공산권 국가들에서도 상당한 과학기술발전이 이루어졌다는 반론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시장 경쟁을 하지 않던 이들이 기술발전을 원하고 이루었던 동력은

무엇인가? 물론 체제간의 경쟁이었다는 대답도 가능하지만 그러면 체제경쟁이 끝난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다시 생긴다. 이웃 나라나 회사가 특정기술을 먼저 개발하면 왜 그렇게 큰일이 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일이다. 그것이 현실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람직한 현실인지를 묻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과학기술발전을 통해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편리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앞으로도 엄청나게 행복한 변화가 올 것이라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이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믿음이지만,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주장은 아니다. 우선 과거 기술발전의 사실이 현대 기술발전의 당위를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또 현대 기술의 발전이 정말 좋은 것이었는지, 어느 시점까지 좋았는지, 그 ' 좋음 '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어느 시점까지의 발전은 좋았지만, 그 이후는 별로였다는 평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과연 끝없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끝없는 행복으로 이어질까?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어서, 컴퓨터가 빨라져서 우리는 행복해졌는가? “네가 배가 불렀구나, 고생을 덜했어”라는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도 하다. 그러나 배부른 세대에게 허기를 면하려 기를 쓰던 세대의 정신과 사고를 유지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또 다른 논변으로 아직 과학기술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신 과학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야 견인효과가 나서 결국 모두가 잘 살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 말은 그럴 듯하지만 모한 논리다. 더 빠른 비행기를 만들어야 그나마 걸던 사람이 중고차라도 타게 된다는 주장과, 새 비행기 개발할 시간과 노력으로 이미 개발된 자동차를 더 만들어 나누자는 주장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하게 들리는가.

이도저도 만족할 만한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기술발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자유지만, 현실은 기술발전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공학자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건 간에, 그가 직장을 구하고 공학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기술발전의 속도를 더하는 일이다. 그 발전의 속도에 한계를 두려는 시도는 현상황에서 애당초 허락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나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사람이 끌려 가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상당한 힘과 시간, 마음을 쏟아서 진행하는 과학기술 발전의 노력이 결국 외부의 압력 때문이란 말인가.

기술발전은 인간의 운명?!

기술발전의 당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기술 발전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도 매우 크다. ‘과학기술입국’의 의지는 근현대 한국을 지켜온 막강 슬로건 중의 하나다. 특정한 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전세계적으로 일단 중지하자는 연구자들의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적도 있지만 오래 못 간 것을 보면 기술발전성에 대한 열망이 우리 나라의 일만도 아닌 것 같다. 현대사회에서 ‘기술(발전)은 인간의 운명’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그런데 이 말이 인간 주도적이고 역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패배적으로 들리는 것이 문제다.

기술철학은 기술발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요 운명이라고 하는 인식을 거부하고 기술발전 중지를 외치는가? 그런 오해도 없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 기술철학의 도전은 기술발전의 당위성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발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는 안일한 태도와, 왜 기술발전이 필요하며 왜 내가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당위성만을 무작정 고집하는 비과학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다. 기술이 운명이라도 좋고, 아니라도 좋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운명이 되어 버리는지, 혹은 그런 생각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근거가 중요하다. 철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노력이다. ‘인류복지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자’, 혹은 ‘과학기술을 통한 행복한 세상의 도래’라는 이상이 조금 훼손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사고 실험을 감행 하더라도, 차마 근거 없는 확신에 자신을 내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철학의 요청이다.

냉엄한 사유를 통해 기술발전의 당위성을 보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가 던져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납득할 수 없으나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라는 것이 밝혀져도 상관없다.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당위들, 즉 운명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고, 운명에 지지 않으려는 사람의 노력이 바로 운명에 마주 서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일 터이기 때문이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루벤대학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